

PA가격 하락세 반전할 듯

럭키 4만톤 공장 9월 완공따라 공급 21만톤으로 확대

올 하반기 PA(Phthalic Anhydride)가격이 공급과잉 심화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9월 럭키(대표 최근선)가 4만톤 규모의 PA공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 공급능력이 17만톤에서 21만톤으로 확대되고, 수요는 13만여톤 규모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PA가격은 지난해 12월 내수가 기준 61만9000원에서 2월들어 65만7000원으로 6.2% 인상되었으나, 이는 주 원료인 OX 국제가격이 91년 하반기 US 걸프 코스트 364달러에서 92년2월 424달러로 인상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1> PA의 지역별 생산능력 추이

(단위:1000톤)

구 분	1988	1991	1993
미 국	558	479	479
서 유 럽	969	1,019	1,019
동 유 럽	433	433	433
아 시 아	803	803	1,155
남 미	212	222	222
기 타	79	79	79
합 계	3,054	3,035	3,387

<표2> 국내 PA 수급현황

(단위:톤)

구 분	1989	1990	1991	1992(추정)
공 급	생 산	98,400	134,951	163,834
	수 입	1,600	4,130	2,048
	합 계	100,000	139,081	165,882
수 요	내 수	90,000	111,522	120,963
	수 출	10,000	28,602	44,452
	합 계	100,000	140,124	165,415

주) ① 생산량은 럭키 올해 가동률 50% 기준 ② 내수 83% · 수출 60% 증가 기준

그러나 올 9월 국내 PA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럭키가 자체수급 체제로 돌아서고 일부 물량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삼경화성(11만톤), 제철화학(6만톤)과의 시장쟁탈전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수출 경쟁에 따른 출혈수출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럭키가 38만톤, 한양화학이 39만톤으로 PVC 생산능력을 확대, DOP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다.

이에따라 PA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DOP의 생산능력을 업체들이 크게 확대, 럭키 10만 5000톤, 삼경화성 14만톤, 한양화학 7만톤, 송원산업 등 기타 3000톤 등 총 31만8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전에는 커다란 수요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일본 · 대만 등의 잇달은 PA공장 신 · 증설로 동남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중국 수출이 약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용도별 수요현황은 가소제 70%, 도료 15%, 불포화폴리에스테르 10%, 기타 5% 사용된다.

<화학저널 1992/6/15>